

# 낙하산 인사 등 갑질... 포스코케미칼, 19개 하청 경영 간섭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8억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만들어 간섭 지분구성, 주도적으로 변경작업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중소 협력사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경영 전반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왔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토록 했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 보유토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관리 기준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2021.5월 기준)
임원 임기	4년 기본+1년+1년, 최대 만 60세
임원 연봉	사장:190백만원, 전무:147백만원, 상무:135백만원
이익잉여금	2.5억원/년
배당률	회사 평가금액의 5%~최대1억씩
지분구성	내부임원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 타 협력사(3~4개사) 67%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의 인사 등 중요 내부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을 담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운용해왔다. 경영 관리 기준

은 수차례 변경돼 왔는데, 2021년 5월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임원 임기는 4년을 기본으로 1년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만 60세까지로 했다. 연봉은 사장은 1억9000만원, 전무는 1억4700만원, 상무는 1억3500만원으로 정했고, 지분은 내부 임원이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 타 협력사가 67%를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

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런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협력사 평가는 2010년부터 회사평가만 했으나, 2019년경부터는 임원평가가 신설됐다.

평가 결과 점수와 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시 재계약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와 연봉기준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협력사대표이사는과다 연봉 수령과 이익잉여금 과다 보유, 지분 구성 미해결 등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연봉기준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포스코케미칼은 특히 경영관리 기준

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기 만료 임박 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하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한 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 임원은 "아니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예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 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스케일업 펀드사업에 대·중전기기업 출사표

기업형 벤처캐피탈 주도 CJ인베스트먼트 등 6개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도의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 모집에 6개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출사표를 던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VC 주도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씨제이(CJ)인베스트먼트 ▲에스엔에스인베스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롤로그벤처스 ▲효성벤처스(가나다 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CVC 주도 펀드는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중견·대기업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모기업 집단이 피투자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운용사 모집에 지원한 운용사별로 제시한 조성목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2810억원으로 당초 조성목표인 800억원의 3.5배에 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견기업에서는조전기자재·기계산업의 선보유니텍, 오토닉스, 현대공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에스엔에스텍이 설립한 '에스엔에스인베스트', 종합무역상사인 현대코퍼레이션이 설립한 '프롤로그벤처스'가 지원했다.

대기업에서는CJ그룹 소속의 'CJ인베스트먼트', 포스코를 모기업으로 둔 '포스코기술투자',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벤처캐피탈이 허용된 이후 출범한 '효성벤처스'가 신청서를 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환경부 이집트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대응 등 가교역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 피해 지원 문제 등을 다루게 될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부터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COP27에 총 198개 회원국이 참석하고,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손실과 피해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 장관은 16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고, 파리협정 이행 의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다.

/자료DB

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 호주, 몽골 등과 양자 회담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COP27은 각국이 지난해 회의 때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 담은 약속을 얼마나 이행하는지 평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탄소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지침 개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중부발전, 차세대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

금속소재 이용한 물분해 기술

한국중부발전은 '차세대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기술은 금속소재를 이용한 물분해 기술로, 기존의 블루수소 생산기술과 달리 별도의 수소(H2) 정제설비와 이산화탄소(CO2) 포집설비 없이도 고순도(99.9%) 수소와 CO2를 분리하여 생산할 수 있다.

지난 2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금속의 물분해소재를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물용 연료전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20킬로와트(kW)급 블루수소 시

스템을 개발하여 운전이 성공했다.

향후 중부발전은 전력그룹사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2025년까지 청정수소발전을 위한 1메가와트(MW)급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차세대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이용한 10MW급 청정수소발전 상용화를 할 계획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글로벌 전력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응하여 보령화력에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제주에 국내 최초로 풍력이용 P2G(Power To Gas) 그린수소 개발하는 등 청정수소 생산과 발전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



20kW 차세대 블루수소 생산시스템.

/한국중부발전

하고 있다.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차세대 블루수소 생산기술 개발은 최근 개정된 수소법에 대응가능한 대용량, 저비용 청정수소 생산 및 발전사업 모델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 코트라-신보 유럽 테크 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다양한 협력 기회 논의

코트라(KOTRA)는 신용보증기금과 지난 4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웹서밋(Web Summit)' 내에 우리 스타트업 12개사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고 투자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웹서밋은 유럽 최대 테크 전시회이자 대표 스타트업 전시회 중 하나로, 13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는 160여 개국에서 약 7만여 명의 참가객과 스타트업 2000여 개사가 참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AI기반 솔루션, 자율주행, 드론 솔루션 등 혁신기술 기업 12개사로 구성된 한국관에는 전시회 기간 내내 참관 투자자와 바이어 발

길이 이어지면서 제품 시연과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참가기업에 더 많은 네트워킹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지역 투자자, 바이어 500여 명을 한국관으로 초청했다. 포르투갈의 최대 에너지기업인 이디피(EDP), 스페인 최대 금융기관인 카이사뱅크(CaixaBank)를 포함한 유럽 대표 기업들이 한국관을 방문, 참가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기회를 논의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스페인 최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이스디(ISDI)와의 협업을 통해 50여 명의 유럽 대표 벤처캐피탈(VC) 및 엔젤 투자자를 초청해 IR 피칭 행사를 주관했다.

/이영석 기자 ysl@